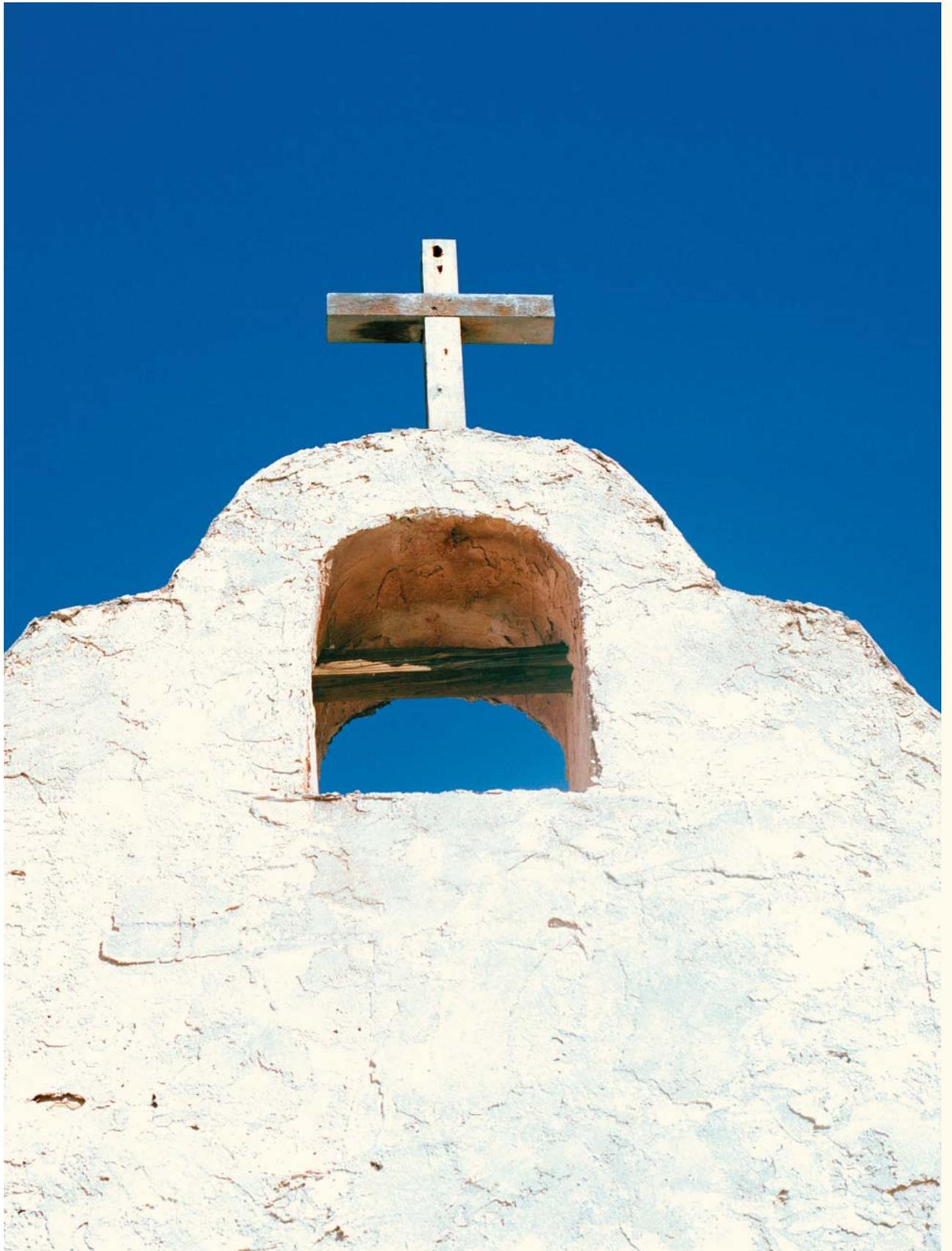




COLUMN ' 주일학교 교사 멘토링



30_worldview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멘토 신국원에게 묻다!

신국원 (충신대 신학과 교수, 세계관아카데미 소장)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새로운 학생들과 알콩달콩 관계 맺기를 시작한 지 한 달. 사랑하는 새싹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독교세계관학교 멘토 신국원 교수에게 질문합니다!

Q1. 교수님, 학생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까요?

비전이 이끄는 삶

성경 속 비전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각기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라보는 곳이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깨어진 세상이 치유될 그날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각각의 비전은 큰 그림의 일부였고, 그들의 삶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둘째, 비전의 사람들 중에는 대단한 영웅이 없습니다. 오히려 못나고 약한 “작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타고난 기질이 별로인 사람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를 이은 야곱은 악랄한 둘째였고, 요셉은 시건방진 “막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성질 급한 살인전과자였습니다.

비전을 따라 사는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성취됩니다. 교훈이 가득한 그들의 이야기는 동일한 길을 걷는 후대 사람들의 비전이 되었으며, 지금도 놀라운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전이 인간적 자질이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비전이 이들을 변화시키고 만들어 갔습니다. 제가 약하고 약하기 때문인지 이 부분이 자주 눈에 띕니다. 성경 이야기는 비저나리(visionary)가 아니라 비전(vision)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의 비전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Q2. 학생들이 성경을 어려워해요.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야 할까요?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영적 시력과 안경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미 훌륭한 세계관 관련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꼭 써야 할지를 두고 많이 고민했던 책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제목이 좋아서인지 꽤 반응이 좋았습니다. 읽고 도움이 되었다는 분도 많아서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책을 마치고 30년 된 숙제를 끝낸 기분이었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품어온 성경적 비전 전달이라는 사명을 조금이나마 수행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안경』에 대한 비판적 평가나 조인도 여러 가지로 주어졌는데, 예상했던 한 가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드라마다』(Drama of Scripture)라는 책을 쓴 내 친구 마이클 고힌(M. Goheen)은 세계관 책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탄했습니다.

고힌은 그 책들이 철학책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계관이 이론이나 철학이 아님을 감안하면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흔히 창조, 타락, 구속으로 정리되는 기독교 세계관의 주제들은 역사 속에 실재했던 구체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마치 이 주제들이 교리나 이론처럼 비춰지거나 추상적인 개념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직접 읽으면 전혀 그렇지 않는데 말입니다.

“성경은 이야기처럼 들려져야 제대로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야기

세계관 책이 철학책처럼 보이는 것은 성경 이야기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부작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성경의 비전을 딱딱한 이론으로 전

락시키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면서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사실 이것은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교회를 담임하던 시절 세계관은 부담스러운 주제였습니다. 타 교회나 학교에서 특강을 하긴 쉬워도 정작 내가 늘 말씀을 전하고 섬기는 교회에서는 어려웠습니다. 철학 강의처럼 비춰질 수도 있었고, 안 그래도 똑똑한 분들이 많은데 성경공부가 아니라 토론장이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예배나 성경공부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었지만, 세계관을 공부할 때는 누군가의 이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비판적이 되어 격론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른 저녁에 시작한 모임이 자정을 훌쩍 넘긴 적도 더러 있었습니다. 격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나 성경적 난제를 놓고 씨름을 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논쟁이 되고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까지 하니 문제였습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것은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성경의 비전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소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과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야기해줍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베푸는 멘토링

교회를 담임하던 시절, 기회가 될 때마다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비전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는지 설교하는 것으로 세계관 공부를 대신했습니다. 내 친구 마이클 고힌과 바르톨로뮤가 성경의 세계관을 드라마로 그려낸 방식도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미 여러 개혁주의자들이 계속해온 일입니다. 네덜란드의 데흐라프(S. G. De Graff)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는 구속의 역사를 『언약과 성취』(Verbondsgeshiedenis)라는 방대한 책을 네 권으로 엮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인물과 사건 중심으로 자녀에게 이야기해주듯 풀어 갑니다. 저도 그들을 본받아 가장 대표적인 비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데흐라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고 연출하는 언약과 성취의 비전을 살아낸 주연들이며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들은 계시와 비전을 드라마 각본처럼 받아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고도 열정적으로 해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족보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연급 이름만 전해집니다. 역대기에는 무려 10장이 넘어가도록 계속 이름만 나열되는데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같이 메마르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부는 순간 살아나서 우리의 경기를 응원하는 증인들로 변합니다. 성경의 족보에 기록된 선조들의 삶은 우리를 이끌고 지도하는 멘토링입니다.

앞서나간 성도들의 응원,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앞서간 성도들의 응원

성경의 족보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영화 끝 자막처럼 빠르게 흐릅니다. 국립묘지에 일렬로 늘어진 애국 선열들의 묘비명을 대하는 느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격려사를 이렇게 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기를 경주하라.” (히 12:1)

우리의 위대한 멘토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푼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 3:12-14)

저도 이와 비슷한 말로 유학 중인 제자를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감히 성경 말씀과 비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께 힘이 될까 하여 편지 일부분을 옮겨 봅니다.

“힘들 때마다 주신 비전을 기억하며 기도로 견디거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란 없거든. 도약은 언제나 쉽지 않은 법이지. 고통스러울 거야. 하지만 눈을 높이, 멀리 향해 뜨고 달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동실 떠올라 창공을 날고 있는 때가 오리라 믿는다.”

* 본 내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 계단공과 <생명의 빛>의 교사용 교재로 함께 제공됩니다. <월드뷰>를 통해 소개할 기회를 제공해주신 신국원 교수님과 총회교육부에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본 단체 실행위원이자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살롬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안경』(이상 MP) 등이 있다.

